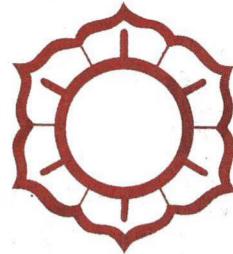


불교총지종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메  
훔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표방한 재가종단입니다.



# 총지종보

2001년  
5월 1일  
화요일  
제 24호

公衆의 일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사사로  
운 일에 이용하지 말며, 중생을 이롭게 하  
기 위해 덕을 베풀고 자기의 이익은 취하지  
말라.  
〔宗祖法說集中〕

발행인 : 혜암 편집주간 : 원송 편집인 : 황의수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 불기 2545년 부처님오신날 불교 총지종 종령 봉축법어

선행(善行)하는 마음, 그것이 수행의 밑거름이요,  
소원성취를 위한 제일의 행입니다

오늘은 '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날'  
이면 우리는 어김  
없이 등을 달고 불  
을 밝힙니다. 그리  
고 소원을 빙니다.

그러나 교도 보  
살 여러분!

그 동안 '부처님  
오신날'이 되면,  
어떤 마음으로, 어  
떤 의미로 연등을

달아왔습니까? 그저 '무엇을 바라  
는' 마음과 서원으로 해오지 않았을  
까 생각됩니다.

자, 올해부터는 부처님 오신날을  
좀더 대아직(大我的)인 연등불사로  
맞이 하도록 해봅시다. 등불을 밝힐  
때 나의 개인적인 서원 뿐만 아니라,  
내 이웃, 사회, 국가, 더 나아  
가 세계인류를 위한 대승적 서원  
을 세워봅시다. 또한 대서원과 끊임  
없는 대정진 불공과 함께, 다른 사  
람들을 위해 작은 행이라도 몸소 베  
풀고 실천하여 봅시다.

가장 먼저 사랑의 실천을 권합니다.  
다. 이웃과 사랑을 나누어 봅시다.

소원성취를 바라거든 남을 사랑하  
고 정을 베풀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연히 나의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선행(善行)하는 마음, 그것이 수  
행의 밑거름이요, 소원성취를 위한  
제일의 행입니다. 선행을 하므로써  
저절로 우리들 마음이 열리고 맑아  
집니다.

종조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것을 송상하면 작은 그릇이 되고,  
큰 것을 송상하면 큰 그릇이 된다'  
고 하셨습니다. '나'의 소원도 중요  
하지만 먼저 '남'을 위해서는, 더 큰  
서원을 가지고 불공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서원이 있어 불공에 들어갈 때는  
남을 위해 봉사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대회향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즉 나의 불공이 궁극에는 타인을 위



하고 전체를 위하  
는 것으로 회향되  
어야 하며, 또 보  
살행의 실천으로  
연속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이제는 예전의  
작은 원에서 벗어  
나 대서원을 일으  
키는 정진의 날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남을 위  
한 실천행과 함께  
'내 마음 닦는 일'

에 더욱 용맹정진토록 합시다. 이것  
이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현실적인  
고 구체적인 실천행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닦으면서 동시에 타인  
을 위해 보살도를 행하고, 또한 남  
을 위해 봉사하며 내 마음을 조복하  
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요, 바른 신  
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불교의 '복지쌍수' (福  
智雙修)요, '정혜쌍수' (定慧雙修)인  
것입니다.

이번 '부처님 오신날'은 진정한  
보살로서 실천을 제일로 하는 행자  
로 거듭 나도록 합시다.

보살에게는 다섯 가지 착한 법이  
있나니,

첫째는, 덕망과 신의를 항상 세우  
는 것이고,

둘째는, 남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  
하지 아니하며,

셋째는, 몸과 행동을 스스로 반성  
하는 것이고,

넷째는, 법을 항상 즐기는 것이  
며,

다섯째는,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  
하고, 다른 사람을 항상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보  
살입니다.

총기 30년(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날

종령 록 정 합장

## 교화활성화 대토론회로 다양한 방법제출

사원, 불단, 법의, 의례등 다양한 교화의 현대화 의견 제출...종단 정체성과의 관계 연구 필요

지난 4월 17일부터 19일 까지 제 57  
회 춘계강공이 전국 사원스승님을 대상  
으로 본원인 총지사에서 개최되었다.

"교화활성화방안 대토론회" 대주제로  
열린 이번 강공은 시종 열기와 활발한  
토의속에서 진행이 되었으며 특히 지방  
사원 및 각 교구회의에서 나온 교화의  
어려움과 교화의 다양한 방법들이 나왔  
다.

17일 개강불사와 특강에서 특종종령  
은 옛날의 창종정신을 되새겨 현재에  
맞는 교화의 방편을 개발하는 온고자신  
의 정신을 강조하시며 다시 한번 종조  
원정대종사의 입고개종의 정신을 잊지  
말고 삼밀과 육행을 수행의 덕목으로  
시시불공, 처처불공법으로 생활시불법  
불법시생활의 진리를 체득케 하는 동시  
에 활동하며 닦고, 닦으면서 활동하는  
진언행자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또한 스승의 상으로 화시 스승의 사  
명을 가슴에 새겨 자신을 추스르는 정  
신적 자주로 삼아 오상성신의 불퇴전의  
각오로서 정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셨  
다. 스승은 우월성이나 상하관계에 있  
는 것이 아니라 교도와 사회에 솔선수  
범하는 실천행을 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며 특히 종단의 위계질서를 강조 하  
셨다.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고 선배는  
후배를 사랑과 애정으로 보살펴 불법을  
공부하는 형제의 애를 가져 종단의 기  
강과 튼튼한 뼈대를 이뤄 종단발전의  
초석을 이루자고 하셨다.

강공 이틀째 교화활성화방안 대토론회  
를 열어 각 교구회의에서 나온 의견  
과 개인적 연구를 발표했다.

대구 경북 교구장 수인사 원봉주교는  
현교와 밀교를 반대개념으로 비라보지  
말고 밀교의궤와 내용을 현교와 관계없  
이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수용하는 자세  
가 필요하다며, 특히 승단의 화합과 정  
돈된 종단의 모습을 기본으로 화시 학  
습과 공부를 생활화하여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조응하는 올바른 스승상의  
화립을 통한 다양한 교화방법의 구체적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  
다.

또한 서울 경인교구장 벽룡사 훈수원  
전수는 종단의 근본 뼈대인 교도의 조  
직화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자  
성학교 및 청소년 조직, 신정회의 활성

화문제에 대한 종단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자성학교의 활성화는  
종단에서 시급히 대안을 개발해야 한다  
고 하였다.

국광사 법성주교는 종단이 살아 남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모범적이고 교화  
가 잘되고 있는 몇몇 사찰이나 종단의  
사례를 연구하여 발표하였다.

조계종 능인선원의 사례를 연구하여  
신도교육, 신도조직, 기도와 교육의 분  
리, 사원설립에 교도의 참여, 지도자의  
리더쉽등 다양한 연구사례를 발표하였

으나 시간적인 문제로 인한 충분한 토  
론이 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혜암 통리원장은 종조님의 창종정신  
내에서 다양한 교화방법과 현대화의 방  
안을 강구 중이다 하시며 가사법의 현  
대화 제작과 제2기도도량건설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가사법의는 만다라의 교리에  
입각하여 선을 보여 공감대를 형성하였  
으며 전체승단의 의사 결집을 통한 수  
정보완하여 가사법의 불사를 진행하겠  
다"고 발표했다.

##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불교도들의 서원담아

민족화해협력과 조국통일 기원대법회 봉행



4월 2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불  
교종단협의회,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  
주최 문화관광부 후원으로 부처님오신  
날 봉축 민족화해협력과 조국통일기원  
대법회가 성대하게 봉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6. 15 공동선언체택 1주  
년을 즈음하여 통일에 대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남북종교간 교류강화, 2차 남북  
정상회담의 조속한 서울개최를 위해 민  
족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불교계가  
앞장설 것을 목적으로 열렸다.

김대중 대통령은 치사에서 "2545년 부  
처님오신날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를  
하며 불교는 1600여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성속에서 종교의 차원을 넘어 이제  
국민의 정신적 베일목으로 자리잡았으  
며 특히 민족의 안위를 위한 호국불교는  
IMF의 국난극복과 남북관계의 든든

한 지대가 되었다"고 하며 이제 나라  
의 안녕과 민족의 화합을 위해 불교계  
의 적극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주변국  
과 세계각국이 인정하는 향별정책에 대  
한 일관성을 강조하며 머지않아 대회를  
통한 협력과 화해가 있을 것이라 했다.

정대 조계종총무원장은 봉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근본에서 보면 같은 능력  
과 가치를 지닌 차별없는 평등한 존재  
라는 부처님의 절대평등사상을 지속적  
인 통일정신의 기초로 인식하고 통일을  
위한 실천의 좌표로 삼아야 한다"고 하  
였다.

이날 행사에는 혜암 통리원장 원송  
총무부장 지성재무부장 법등 교정부장  
및 서울 경인자지역 스승님과 교도를 비  
롯한 여·야 정계인사등 100여명이 참  
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  
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 한  
바 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혼자서는 살  
갈 수 없다는 결론일 것이다. 수많은 유정  
무정들과의 만남과 헤어짐, 생활과 소멸 불  
교에서는 이를 인연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  
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스스로가 훌로  
있을 시간을 허락함에 있어 너무 인색한 것  
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일상적인 범속(凡俗)에 편승하여 표류하  
느라 자신을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데  
너무 등한시 한 것이 아닌지, 훌로 있는 시  
간은 본래적인 자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외부의 소리와 빛깔과 냄새  
와 맛과 그리고 감촉에 너무 민감하여 자아  
비단에서 물려오는 진정한 자신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있다. 생활이라는 채찍에 밀려  
마음의 여백은 조금도 없이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일에 쫓기면서 허겁지겁 살아  
가다보니 이제는 쫓기지 않으면 불안하기 조  
차할 지경이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환경이나 조건들이 나를 움직  
이고 있는 것이다.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일  
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맞물려 잘 돌  
아가는 톱니바퀴같은 일상적인 생활보다 그  
일상 옆에 있는 여백이 아닐까. 일, 물건 사  
람, 시간 할 것 없이 너무 가득 차 있는 세상  
조금의 여유나 여백을 보면 참지 못하는  
오늘의 일상에서 당장 우리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서원당으로 가자. 그리고 부처님전에  
향 하나 피우고 앉아 자신은 지금 어디에 있  
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른 대도(大道)인지 스스로에게 물어  
보고 생각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저 아래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에 귀 기울려 보고 그리고 서원당에 앉  
아 있는 동안만이라도 철자하게 혼자 되어  
보자. 나를 불고 있는 모든 연을 버리고  
오로지 나와 그리고 부처님만 생각하는 시간  
을 가져 보는 것이 어떠한지.

## 자석사 현공불사 안내

불교총지종 부산·경남교구 자석사 현공불사를 전국  
스승님과 교도님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 일 시 : 총기 30년 5월 23일 14시

• 장 소 : 불교 총지종 자석사 서원당

불교 총지종 통리원장 혜 암

— 아 래 —



## 사설

## 부처님께서 나하신 참뜻, 그 가르침을 되새기자

불기 2545년 시월 초파일,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다. 오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뜻은 무명중생을 제도하고자 함이요, 번뇌로부터 해탈토록 하자 함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사회에 고연 부처님께서 나하신 참뜻이 살아 숨쉬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지극히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진정한 불자라면, '과연 석존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꼴만 사천 법문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도 실천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자문과 깊은 반성을 가져야 하리라고 본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생의 경시풍조가 만연해 있고, 인간 심성의 황폐화는 극에 달하여 있다. 배타적 이기주의와 편견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인간 상호간의 갈등과 반목은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계층간의 갈등, 지역간의 갈등, 빈부간의 갈등은 기본과 원칙이 사라진 사회,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맞물려 그 골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또 갖가지 부도덕하고 부조리한 사회현상들이 밖으로 표출되고 집단적 행동이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는 정권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처럼 피폐해하고 어두워진 제일 원인은 우리 모두가 인격완성의 실현의지와 인간존엄의 정신을 상실한 데에 있다. 이는 무명에서 비롯된 자업자득의 소치요, 당연한 인과인 것이다. 또한 더불어 사는 인간다운 삶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한 결과이다.

부처님 오신 날, 그 의미를 새삼 되새기는 것은 2천 6백여년 전 부처님의 큰 인간선언, 시현의 가르침이 오늘날 더욱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한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우리 모두 이 날의 참뜻을 헤아리고 석존의 가르침대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모든 인간이 인간의 존엄함을 깨우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서원한다.

##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종단홈페이지는

우리종단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진지 몇 년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종단은 홈페이지 전문관리자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 상의 홈페이지는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단체의 얼굴이다. 현재 인터넷에는 수천만 종류의 홈페이지가 등록되어있고 그 중에는 단체나 조직이 아니라 개인 홈페이지까지 있다. 특히 불교계는 각 종단 홈페이지는 물론 사찰이나 개인 암자 교리연구단체 혹은 개인 수도승들도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교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물론 홈페이지지만 만들었다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그 성과의 크고 작음이 판별 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종단의 홈페이지의 성과는 어떠한가? 객관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러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종단의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의 결여이다. 현재 종단홈페이지에 방문자수는 약 2만 2천명 정도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능인선원이나 구룡사 그리고 봉은사 홈페이지의 방문자수에는 훨씬 못미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의 내용에서 보면 자료업그레이드나 기타 불거리 그리고 정보제공등 홈페이지의 역할은 하나도 못하고 있다. 그 예로 홈페이지 새소식에는 두달이 지난 소식이 아직도 있다.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들은 법장원 연구원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홈페이지구성을 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부끄러운 홈페이지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폐쇄할 것인지 만약 운영을 계속한다면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중 제일 시급한 것은 전문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홈페이지 전문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홈페이지가 인터넷상에서는 우리 종단의 얼굴이며 첫인상인 것을 생각해볼 때 결코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곤란한 부분이다.

## 부처님의 자비광명 온누리에



칠성부대 OP 점등식에 앞서 합장하는 스승님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총지 종 OP 점등식이 지난 19일 휴전선 최전방 칠성부대에서 혜암 통리원장, 의강 중앙종의회 의장, 박홍열 사단장, 보봉 백암사 법사등 200여 교도와 군장병이 참여하여 성대하게 봉행되었다.

원승 총무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의 의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이율리 북한 동포에게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길 지심으로 기원했다.

의강 중앙종의회 의장은 축원문에서 내 가족 내 형제의 안위를 위해 내 몸 아끼지 않는 대보살 군군 장병들에게 지혜와 용맹과 평안을 기원하고 북녘 땅에도 하루빨리 평화가 깃들어 북한동포들에게 안식과 희망으로 인도하여 주기를 축원하였다.

박홍열 사단장은 축사에서 지금 점등된 자비와 광명의 불빛이 지금도 허기와 배고픔으로 가득한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과 해탈의 불빛이 될것이며 이 먼곳까지 매년 찾아주신 총지종 통리원장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한편 점등법회에 앞서 전국사원 스승님과 교도는 백암사에서 부처님오신 날을 봉축하고 남북평화통일과 북한동포를 위한 법회를 봉행하였다.

## 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 날 혜암 통리원장 봉축사

오늘은 '불기 2545년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요, 진리의 등불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 시바세계에 나타나신 날입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뜻은, 일체중생을 해로부터 해탈시키고자 함이요, 중생들에게 짙게 드리워진 무명의 그들을 환하게 밝혀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미혹과 고난, 다툼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이 땅의 중생을 제도하여 모두가 함께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데 인간으로 오신 부처님 시현의 참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역사의 시현을 통해 자아실현의 길을 열어 주셨고, 또 모든 중생들에게 정각의 근본인 불성(佛性)이 있음을 깨우쳐 주셨으니, 부처님 오신 날! 이 날은 바로 인간존엄의 날이요, 생명의 날이며 광명의 날인 것입니다.

우주 법의 대자연!

민유가 모두 유태소성(六大小成)이요, 유태법계(六大小界)가 다 법신 부처님 일진대 하늘을 나는 종달새, 물 속을 누비는 물고기, 지나가는 바람소리, 물소리, 산천초목, 살리만산 모두가 존엄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더욱 자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체대비의 정신을 더욱 발현해나갈 것을 바로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체대비의 정신과 함께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나의 삶과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자각의 시간'

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과 마음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 인사발령

99회 원의회·69회 중앙종의회 연석회의 개최  
사감원장에 송하 성화사 주교 선출

원의회에 앞서 원승 총무부장의 설명.

지난 4월 16일 원의회와 중앙종의회가 개최되어 총기 29년도 통리원, 전당건설, 유지재단 결산 심의를 하여 통리원 수입·지출을 심의 결과 각각 수입 42억여원과 지출 36억여원을 결산 심의하였으며 전당건설은 수입 30억여원, 지출 29억여원, 불교총지종유지재단 수입·지출 26억여원을 각각 심의 가결하였다.

또한 일부 인사처리내규와 전당건설법, 기로원법, 중앙교육원법, 장학금지급 시행규정, 장의법등 일부 종법개정을 하였으며 특히 장학금 지급시행규정에서 '종단에서 필요할시는 원의회의 결의를 거쳐 외국유학문호를 개방'하였으나 야간을 이용한 불교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에 대한 장학금 지급

내가 종단에  
몸 담은 지 올  
해로 12년째에

## 생활속의 밀교

글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감을 잡지 못하거나 시상(詩想)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곤욕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럴 때 복잡한 마음을 뒤로 하고 서원당으로 들어가 조용히 앉아 있곤 했다. 한참동안은 아무 생각없이 앉아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온갖 망상 잡념과 함께. 더 이상의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을 때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아주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편안한 마음과 맑은 정신이 어이없어서 애를 써도 떠오르지 않았던 글의 시상들이 일순간 번뜩 일어나는 것 이었다.

그런데 요즈음은 염송이 조금 달라졌다. 그렇다고 특별히 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염송하는 마음 자체, 염송할때의 정신집중, 호흡조절 등을 고려하여 마음을 모으는데 힘을 쓴다는 것이 큰 변화라면 변화이다. 이러한 나의 변화, '하고 싶어서' 염송을 하게 된 변화의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다. 그것은 글쓰는 일에서 출발됐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글을 쓰는 일이 많았다. 그건 바로 예전과 달리 염송을 '내가 하고 싶어서' '마음이 일어나서' 한다는 것이다. 그전에는 염송을 미지 못해 할 때가 많았다. 그 염송에는 글을 써도 떠오르지 않았던 글의 벌디론 감정이 있을리 없었다.

그런데 요즈음은 염송이 조금 달라졌다.

그렇다고 특별히 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염송하는 마음 자체, 염송할때의 정신집중, 호흡조절 등을 고려하여 마음을 모으는데 힘을 쓴다는 것이 큰 변화라면 변화이다. 이러한 나의 변화, '하고 싶어서' 염송을 하게 된 변화의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다. 그것은 글쓰는 일에서 출발됐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글을 쓰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요즈음은 염송이 조금 달라졌다.

그렇다고 특별히 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염송하는 마음 자체, 염송할때의 정신집중, 호흡조절 등을 고려하여 마음을 모으는데 힘을 쓴다는 것이 큰 변화라면 변화이다. 이러한 나의 변화, '하고 싶어서' 염송을 하게 된 변화의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다. 그것은 글쓰는 일에서 출발됐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글을 쓰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요즈음은 염송이 조금 달라졌다.

그렇다고 특별히 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염송하는 마음 자체, 염송할때의 정신집중, 호흡조절 등을 고려하여 마음을 모으는데 힘을 쓴다는 것이 큰 변화라면 변화이다. 이러한 나의 변화, '하고 싶어서' 염송을 하게 된 변화의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다. 그것은 글쓰는 일에서 출발됐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글을 쓰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요즈음은 염송이 조금 달라졌다.

그렇다고 특별히 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염송하는 마음 자체, 염송할때의 정신집중, 호흡조절 등을 고려하여 마음을 모으는데 힘을 쓴다는 것이 큰 변화라면 변화이다. 이러한 나의 변화, '하고 싶어서' 염송을 하게 된 변화의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다. 그것은 글쓰는 일에서 출발됐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글을 쓰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요즈음은 염송이 조금 달라졌다.

그렇다고 특별히 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염송하는 마음 자체, 염송할때의 정신집중, 호흡조절 등을 고려하여 마음을 모으는데 힘을 쓴다는 것이 큰 변화라면 변화이다. 이러한 나의 변화, '하고 싶어서' 염송을 하게 된 변화의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다. 그것은 글쓰는 일에서 출발됐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글을 쓰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요즈음은 염송이 조금 달라졌다.

그렇다고 특별히 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염송하는 마음 자체, 염송할때의 정신집중, 호흡조절 등을 고려하여 마음을 모으는데 힘을 쓴다는 것이 큰 변화라면 변화이다. 이러한 나의 변화, '하고 싶어서' 염송을 하게 된 변화의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다. 그것은 글쓰는 일에서 출발됐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글을 쓰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요즈음은 염송이 조금 달라졌다.

그렇다고 특별히 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염송하는 마음 자체, 염송할때의 정신집중, 호흡조절 등을 고려하여 마음을 모으는데 힘을 쓴다는 것이 큰 변화라면 변화이다. 이러한 나의 변화, '하고 싶어서' 염송을 하게 된 변화의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다. 그것은 글쓰는 일에서 출발됐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글을 쓰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요즈음은 염송이 조금 달라졌다.

그렇다고 특별히 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염송하는 마음 자체, 염송할때의 정신집중, 호흡조절 등을 고려하여 마음을 모으는데 힘을 쓴다는 것이 큰 변화라면 변화이다. 이러한 나의 변화, '하고 싶어서' 염송을 하게 된 변화의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다. 그것은 글쓰는 일에서 출발됐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글을 쓰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요즈음은 염송이 조금 달라졌다.

그렇다고 특별히 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염송하는 마음 자체, 염송할때의 정신집중, 호흡조절 등을 고려하여 마음을 모으는데 힘을 쓴다는 것이 큰 변화라면 변화이다. 이러한 나의 변화, '하고 싶어서' 염송을 하게 된 변화의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다. 그것은 글쓰는 일에서 출발됐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글을 쓰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요즈음은 염송이 조금 달라졌다.

그렇다고 특별히 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염송하는 마음 자체, 염송할때의 정신집중, 호흡조절 등을 고려하여 마음을 모으는데 힘을 쓴다는 것이 큰 변화라면 변화이다. 이러한 나의 변화, '하고 싶어서' 염송을 하게 된 변화의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다. 그것은 글쓰는 일에서 출발됐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글을 쓰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요즈음은 염송이 조금 달라졌다.

그렇다고 특별히 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염송하는 마음 자체, 염송할때의 정신집중, 호흡조절 등을 고려하여 마음을 모으는데 힘을 쓴다는 것이 큰 변화라면 변화이다. 이러한 나의 변화, '하고 싶어서' 염송을 하게 된 변화의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다. 그것은 글쓰는 일에서 출발됐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글을 쓰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요즈음은 염송이 조금 달라졌다.

그렇다고 특별히 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염송하는 마음 자체, 염송할때의 정신집중, 호흡조절 등을 고려하여 마음을 모으는데 힘을 쓴다는 것이 큰 변화라면 변화이다. 이러한 나의 변화, '하고 싶어서' 염송을 하게 된 변화의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다. 그것은 글쓰는 일에서 출발됐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글을 쓰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요즈음은 염송이 조금 달라졌다.

그렇다고 특별히 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염송하는 마음 자체, 염송할때의 정신집중, 호흡조절 등을 고려하여 마음을 모으는데 힘을 쓴다는 것이 큰 변화라면 변화이다. 이러한 나의 변화, '하고 싶어서' 염송을 하게 된 변화의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다. 그것은 글쓰는 일에서 출발됐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글을 쓰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요즈음은 염송이 조금 달라졌다.

그렇다고 특별히 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염송하는 마음 자체, 염송할때의 정신집중, 호흡조절 등을 고려하여 마음을 모으는데 힘을 쓴다는 것이 큰 변화라면 변화이다. 이러한 나의 변화, '하고 싶어서' 염송을 하게 된 변화의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다. 그것은 글쓰는 일에서 출발됐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글을 쓰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요즈음은 염송이 조금 달라졌다.

그렇다고 특별히 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염송하는 마음 자체, 염송할때의 정신집중, 호흡조절 등을 고려하여 마음을 모으는데 힘을 쓴다는 것이 큰 변화라면 변화이다. 이러한 나의 변화, '하고 싶어서' 염송을 하게 된 변화의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다. 그것은 글쓰는 일에서 출발됐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글을 쓰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요즈음은 염송이 조금 달라졌다.

그렇다고 특별히 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염송하는 마음 자체, 염송할때의 정신집중, 호흡조절 등을 고려하여 마음을 모으는데 힘을 쓴다는 것이 큰 변화라면 변화이다. 이러한 나의 변화, '하고 싶어서' 염송을 하게 된 변화의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다. 그것은 글쓰는 일에서 출발됐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 이기선 그림속의 불교이야기

## 인계(印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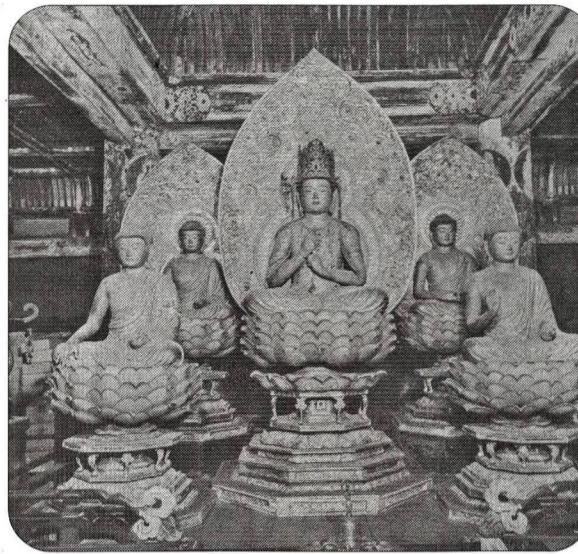
하늘에서 꽃비가 쏟아진다. 부처님께서 땅에 흐트러진 술 한 꽃무더기 가운데 한 송이를 말없이 손으로 집어 들어 대중들에게 보이셨다. 수많은 손길이 한 곳에 쏠렸지만 그 뜻을 헤아리지는 못하였다. 다만 가슴준자만이 빙긋 웃었다.

염화시중의 미소. 이심전심(以心傳心)의 한 극치를 보여주는 광경이다. 또한 언어도단(語道斷)의 경지를 엿볼 수 있는 경지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나라 일상생활에서 말이 없다면 의사소통을 나눌 때 느끼는 답답함.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통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구나 하는 깨달음과 더불어 상대방에 대해 새삼스런 친밀감을 느끼기도 한다. 언어장애자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수화(手話)나 연극 가운데 무언극(無言劇)을 보면 무엇인가 소리를 넘어서 깊은 의미가 가슴에 와닿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어쩌면 불상들에서 볼 수 있는 인상(印相) 또는 인계(印契)의 기원이 이러한 데서 기원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인상 또는 인계란 부처님이나 보살이 특정한 손가짐을 통해 종교적 상징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인(印)이란 산스크리트어 무드라(Mudra)를 뜻을 김한 말이다. 무드라는 한자로 무다라(毘陀羅) 등으로 소리옮김하기도 한다.

잡아함경(雜阿含經) 제 25에는 “일시 왕이 이 말(곧 무드라)을 가지고 종이 위에 쓰고 봉함한 다음 치인(齒印)으로 이것을 찍었다”라는 말이 설해져 있으며, 비니야잡사(毘奈耶雜事) 제4에도 인장 곧 무드라가 비구가 소지하는 물건 가운데 하



금강계 만다라의 五佛像. 중앙 대일여래가 지원인을 하고 있다.

## 불보살등이 중생구제를 위하여 근본을 마음밖으로 드러내는 것

또한 무량하다고 하겠다. 경전이나 의궤(儀軌)에 실린 인계의 수는 수천 가지에 이른다. 밀교에서는 이렇게 많은 인계도 십이합장(十二合掌) 6종권(六種拳) 가운데 하나를 바탕으로 맷개 되므로 12합장 6종권을 인모(印母)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밀교에서 볼 수 있는 인계는 수행법으로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밀교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존상(尊像)들의 인계를 모두 헤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석가모니부처님과 관련된 근본오인(根本五印)을 중심으로 중요한 인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절을 찾아 불·보살에게 예경을 드릴 때 보다 깊은 신앙심을 북돋게 하고자 한다.

석가여래의 근본오인은 선정인(禪定印)·행마인(降魔印)

·전법륜인(轉法輪印)·시무외인((施無畏印)·여원인(與願印))

이란 다섯 가지 수인을 가리킨다. 이를 수인은 석가여래의 생애 가운데서 커다란 사적(事蹟)과 관련을 맺고 있다. 뒷날 이 근본오인은 밀교의 오여래(五如來)의 오인이 된다.

(다음호에 계속)

## 총 지종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알려드립니다

5월 철쭉꽃 활작관 계절에 총지종을 사랑하는 모든 분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활동을 가지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법음을 실천하는데 많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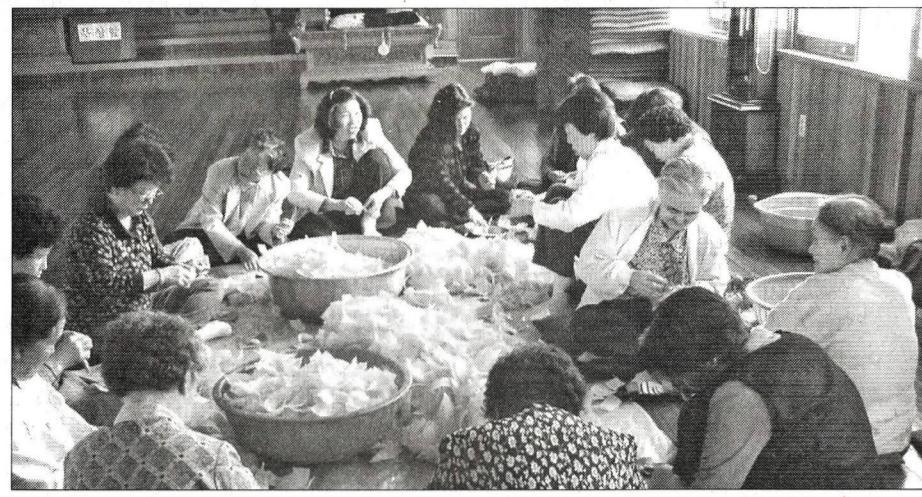
#### 양재천 생태계 보호활동

청계산을 시작으로 하여 깨끗한 물이 양재천을 지나 한강에 유입되는 동안 하천쓰레기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고 있으며 서울 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보호하고자 그 시발점의 하나인 양재천 일대 오물을 수거 처리하므로 수질오염원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일시 : 5월 6일 일요일 13시30분 총지사에서 출발  
장소 : 양재 시민의 숲 인근  
대상 : 가족단위로 참석  
참가비 : 1 가족당 ₩ 10,000

### 사원은 지금...

## 연일 하나 하나에 진언수행의 마음을 담고



### 불교텔레비전 혜암통리원장 출연

지난 4월 7일 혜암 통리원장은 불교텔레비전 열린마당에 출연하여 앞으로 총지종의 발전과 방향, 계획과 신임통리원장으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였으며 총지종의 지표인 생활불교, 불교의 생활화를 알기 쉽게 영상을 통한 포교를 하였다.



### 정보 다이제스트

#### 강남 과외비 평균 年 286만원

교육인적자원부가 3일 발표한 「2000년 전국 초·중·고 과외비 실태조사」는 여전히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고액과외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의 과외학생 1인당 평균 과외비는 연간 286만 6000원, 일산?분당은 232만7000원으로 99년 대비 각각 49%와 45.1%가 늘었다. 이는 전국 평균(133만5000원)의 99년 대비 상승률 6.3%에 비해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금액으로도 각각 2.14배, 1.74배 수준이다.

전국 과외비 7조1276억원 가운데 초등부 3조6982원으로 중학생(2조186억원), 고교생(1조4105억원)보다 훨씬 많았다. 과외비율은 초등학생이 70.7%로 가장 높고, 중학교 59.5%, 고교생 35.6%이었다.

#### “스트레스엔 용서하는 마음이”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건강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미 ABC방송이 3일 전했다.

미 미시건주 호프대 연구팀은 최근 7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용서’와 ‘신체반응’의 연관성에 관한 내용을 ‘심리과학’지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먼저 학생들에게 16초간 ‘마음의 상처를 입은 순간의 고통과 풀리지 않는 유감’을 떠올리게 한 뒤 신체변화를 측정했다.

그러자 정상일 때 분당 26회 수준이던 심박동수가 분당 39회 수준까지 치솟았고, 혈압도 2.5mm/Hg 정도 올라갔다는 것. 하지

만 잠시 휴식을 취하게 한 뒤 다시 16초간 ‘그 사람을 이해하고 개인적 장점을 떠올리며 용서하려는 마음’을 생각하게 하자 심박동수가 평균 0.5회 정도 떨어지고 혈압도 정상수준으로 회복됐다.

#### 밥 3분의 1만 줄여도 1kg 빠져

칼로리는 생활이다. 무조건 굶어서 살 뺄 수는 없는 일. 하루 필요한 칼로리 양보다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이 빠진다. 이 간단한 더하기 빼기가 칼로리 다이어트의 기본.

보통 정도 활동량을 가진 성인 여자의 하루 칼로리 필요량은 2000칼로리. 칼로리 섭취량을 20% 줄이면서 배고픈 느낌을 줄이려면 칼로리 양이 적고 부피가 큰 음식을 먹으면 된다.

예를 들어 오므라이스나 카라비아스는 한 그릇에 690칼로리나 되지만, 푸드비빔밥은 410칼로리 밖에 안된다. 심심풀이로 집어 먹는 피자 작은 조각(100g)도 270칼로리나 되고, 불어빵도 1개 100칼로리. 기름에 끓거나 튀긴 음식을 피하고 간식도 삼가는 게 기본이다.

#### 재혼女-초혼男 결혼 급증

서울시는 통계청 등의 자료를 토대로 서울 여성들의 가족 노동문화 등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2000년 서울여성백서’를 22일 발간했다.

결혼 및 이혼: 백서에 따르면 80년 1.5% 수준이던 ‘재혼 여성+초혼 남성’의 결혼 비율이 99년 3.3%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재혼 남성+초혼 여성’은 4.8%에서 3.3%로 줄었다.

또 이혼율은 매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여 90년 1만3432건에서 99년 2만5917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97년 21.7%였던 이혼율이 98년과 99년에는 각각 29.6%와 30.4%로 크게 늘어 외환 위기로 인한 가정 경제의 파탄이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 총사모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76-2 불교총지종 내 [Http://shumisan.hihome.com/게시판](http://shumisan.hihome.com/게시판)

경주 국광사 주교  
법성

## 지상설법

## 효도(孝道)는 백행의 근본

세종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방으로 나아가시다가 한 뼈무더기를 보시더니 오체를 땅에 불이시어 그 마른 뼈를 정중히 예배하셨다. 이를 본 아난과 대중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종이시여, 여래께서는 바로 삼계의 큰스승이시며 사생(四生)의 어버이시라 여러 사람들이 귀의하고 공경하옵거늘 어찌하여 이름모를 뼈무더기에 친히 절하옵니까?”

부처님이 아닌에게 이르셨다.

“네가 비록 나의 상족(上族) 제자(弟子)이며 출가한 지도 오래 되었지만 아는 것은 넓지 못하구나. 이 한 무더기의 마른 뼈가 어찌면 내 전생의 조상이거나 여러 대에 걸친 부모일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다.” 하시며, “무릇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게 됨은 부모님을 인연하기 때문이라니. 아버지가 아니면 나지 못하고 어머니가 아니면 자라지 못하니 어머니 몸 속에 의지하여 달이 차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불호한 자식은 몸이 허물어져 죽게 되면 무간지옥에 떨어지고,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하거든 부모를 위하여 경전을 만들어라 하셨다.

“부처님께서는 효에 대한 말씀을 간곡하게 하시고 몸소 실행에 옮겨신 분이므로 부처님을 흉양하고 존경합니다. 아무리 높은 지혜와 덕성과 보살도를 실천한다 하더라도 만약 효도를 행함에 흠이 있다면 다른 수행이나 덕성은 모두가 형 빙겁데기뿐입니다.

부모은 중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행의 근본이며 보리행의 유품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효경에도 ‘어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고 어버이를 존경하는 사람은 남에게 오만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기에 경에 말씀하시기를 ‘효의 공덕은 부처님께서 한 걸 동안 상속하여 말씀하시더라도 다 말씀하지 못한다.’ 하셨고,

“부처님이 삼계의 비활 데 없는 금색신(金色身)을 성취한 것도 다상 동안 효도한 인연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효도하는 공덕이 이처럼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노인들의 세가지 고통

노인들에게는 어떠한 고통이 있는지 알 아봅니다.

노인에게는 세가지의 큰 고통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고(經濟苦)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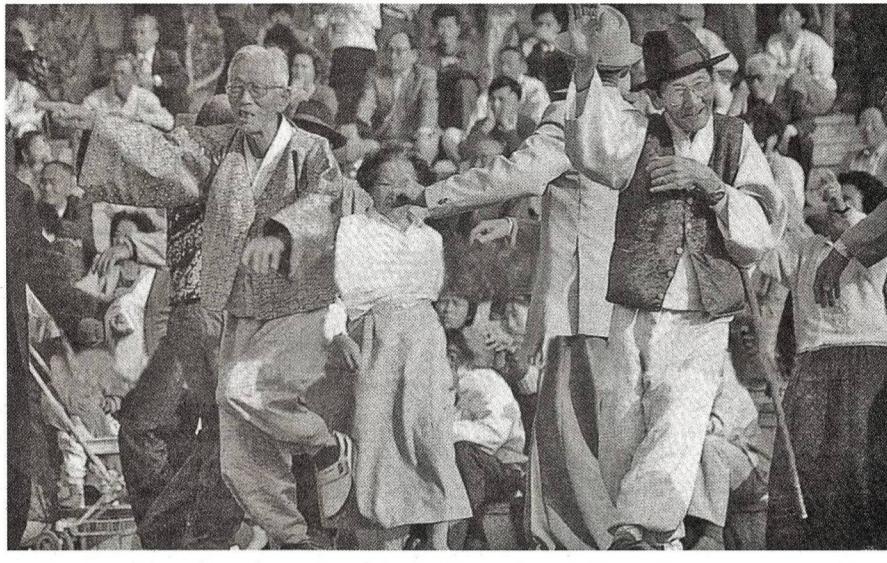
돈이 없는 고통을 말합니다. 한 평생

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입니다.

그러나 나이 드신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혼히들 늙은 사람이 돈이 왜 필요하냐고 반문할 지 모르지만 자식 결혼시켜 남의 식구 들어오고 손

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여러 가지로 괄세를 많이 받습니다. 얼굴에 주름살이 많아 흥해 보이고, 몸에는 냄새가 나오고, 정신이 없으나 노망이 들었다고 내 가족 마셔도 가까이



## 종조님께서는 “효순은 심덕의 대원이요, 백행의 근본이며 보리행의 유품이 되는 것이라.”

열심히 벌어서 좋은 음식과 좋은 옷 한번 입어 보지 못하고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이제 나이 들어 경제적 능력이 없으나 수중에 돈이라고는 없습니다.

내 자식만 훌륭하게 키워 놓으면 노후는 걱정이 없겠다며 모든 것을 아끼지 않

자들이 태어나니 용돈도 주어야지요, 최소한의 체면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일용잡화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노인들은 적은 돈이라도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합니다. 힘든 살림살이지만 서로 나누어 쓰는데 큰 기쁨이 있습니다. 매달 적은 용돈이라도 드리는 것은 이제 자녀들의 뜻입니다.

둘째는 병고(病苦)입니다.

몸에 병이 드는 고통을 말합니다.

나이 늙으면 자연히 찾아오는 병고는 누구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자기 몸 돌보지 않고 너무 천하게 여긴 탓으로 나이가 들어 병만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치료라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도 없으니 어려움은 더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는 고독고(孤獨苦)입니다.

외로운 고통을 말합니다.

산업화의 물결로 대가족 제도는 붕괴되고 그 대신 핵가족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기다가 직장을 따라 도회지로 이동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헤어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니 부모님은 자연히 흘로 남게 됩니다.

인간이 겪어야 할 여덟가지(팔고) 고통도 크다 하지만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외롭고 쓸쓸한 고통은 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노인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자살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니 고독

하기를 싫어합니다. 깨끗하게 하지 못한 노인에게도 문제는 많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노인들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요즈음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부모에게 그저 전화로만 안부를 묻고 멍절 때나 만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바람은 밤상마리에 자식과 미주앉아 오손도손 정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핵기족회된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의 생활패턴이 남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노인과 함께 기거하는 가정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즈음 부모들도 자식과 따로 사는 법을 잘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식과 따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을 섬기는 일은 어떻게 보면 쉽고도 간단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돈 만원을 쓸 때에 노인에게 천원이라도 쓰면 정말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불자님들은 꼭 한 번 실천해 보십시오. 노인들은 자기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제일 좋아하며 작은 것에도 감동을 잘 하여 고마워 하고, 반면에 서운하면 곧 잘 마음을 상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의 십분의 일이라도 부모에게 사랑을 드린다면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자식에게 실림을 물려주고 뒷방 늙은이

가 된 부모는 희망이 없습니다. “일하는 것, 이것만이 살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파브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어머님이 오늘 시장을 봐서 맛있는 것을 해 먹을시다.” 하면 정 말이지 사는 맛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부모와 동거를 하든 하지 않은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일거리를 배려해 주시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 부모의 마음이 곧 부처라

옛날에 늙고 병든 노인을 버리는 기로 속(棄老俗)이라는 풍습이 있는 어느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나라의 풍습에 따라 늙으신 어머니를 업고 첨첩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등에 업힌 어머니께서는 소나무 가지를 꺾어 가는 길마다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 할 먼 길을 와서 어머니를 내려놓고 막 떠나를 때에 어머니께 여쭈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산을 올라 올적에 소나무 가지를 꺾어 왜 길 비단에 버렸습니까?”하고 여쭈었더니,

“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릴까 해서 그랬단다.”라고 하시더랍니다.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큰 것인 줄 미쳐 깨닫지 못한 아들은 어머님을 업고 집으로 돌아와서 지극한 효성으로 봉양하였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곧 부처님의 마음이자, 관세음보살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부처님께 공양함과 부모께 효도한 공덕이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절에 가서 부처님은 공양해도 가정에 살아 계신 부처이신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중생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중생입니다. 부모를 위해 섬기는 정성이 부처님께 서원하는 마음자세로 행한다면 복을 받지 않은이가 없을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섬김하게 해놓고 서원당에 앉아 염송한들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심공할 팬 부처같고 돌아서면 중생되는 이중적인 마음으로 생활하지 말고 절에 가나 집에 오나 오직 그 마음 하나 서원하는 마음자세로 변함이 없어야 복을 받습니다.

제가 (주)대우에서 직장생활을 할 적에 모신 사장님 한 분은 엄격한 유교 집안에 자라나서 그런지 항상 겸손하여 예의가 아주 바르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고향에 계신 연로하신 아버님의 전화를 받을 때는 언제나 두 무릎을 꿇고 받으시고, 또 고향으로 아버님께 문안을 드리러 갈 때에는 언제나 차를 동구밖에 세워두고 걸어서 문안을 드리고, 월급날이 되어 받은 월급봉투는 아버님께 먼저 보여드리고 가게에 쓴다는 말씀을 듣고 사장님의 몸에 밴 예의범절과 부모공경은 얼마나 지극했는지를 짐작하고도 납득합니다.

효사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와 이념에 따라 그 내용이 다소 변화되기도 하나 부모를 공경하고, 그 뜻을 빙들어 섬기며 봉양한다는 본질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인륜의 가장 유품되는 덕목입니다.

## 아는 만큼 보이고 느낀다

##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싶어요”

문 : 안녕하세요. 나 주위에서 안 좋은 일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일은 안 좋은 일입니다. 저에게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싶습니다. (ID가 singsing인 네티즌)

답 : 먼저 일체유심조의 마음 도리를 깊이 깨닫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간 밝은 마음 보다는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되어지는 마음 보다는 안 되어지는 마음, 밝은 마음 보다는 어두운 마음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원인을 알고 나면 처방은 자연히 알게 되는 것. 세상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쪽에서 보면 좋은 것도 시각을 달리하면 미워질 수 있고, 저쪽에선 아름다운 것이 이쪽에선 못나 보일 수 있고, 전체를 두루 밝게 바라보

는 안목이 있다면 이쪽에서 보면 아래서 좋고, 저쪽에서 보면 위에서 좋을 수 있겠지요. ‘마음을 이제부터 밝고 아름답고 즐겁게 하도록 연습해 가면 나의 미래는 밝고 아름답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밝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답답하고 어두운 마음이 자꾸 생겨날 때는 육자진언 염송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1시간, 3시간, 또는 7시간을 장차하여 진언염송에 들어가보세요. 그 가운데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의 치유와 안전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진언염송과 함께 좋은 마음 밝은 마음 갖는 것을 꾸준히 연습해나간다면 분명 평온과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장원)

## 육자진언 염송은 마음의 실상을 알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의 치유와 안전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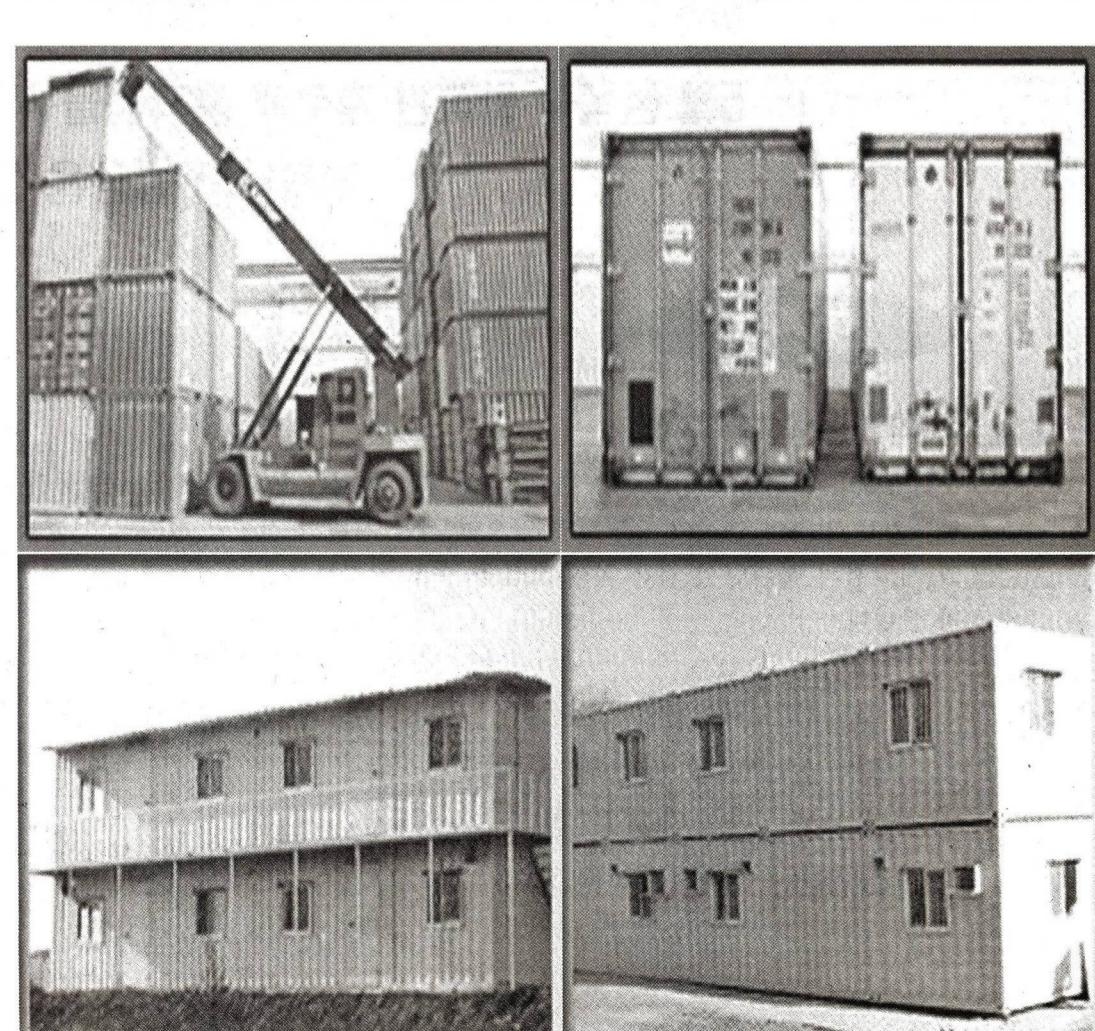
# 계통 형제 콘테이너

## 내가 살 집이라고 생각하며 만들겠습니다. (공장 직접 제작)

- 주택(농가용 주택 포함)
- 사무실
- 창고
- 원두막
- 경비실
- 차고

- 방갈로
- 매점
- 정류장
- 영안실
- 기타 특수 주문제작 판매

공장 : 충남 계룡시 두마면 유동리  
대표 : 강 대길  
전화 : 042) 841-2251 ~ 2





## 총지문화제소식

## 국광사 교도 참여

## “한국의 술과 떡 잔치 2001” 열려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4일 옛새동안 경주보문관광단지내 엑스포 행사장에서 펼쳐졌다.

“세계속의 우리 맛, 멋 그리고 흥”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전통술과 떡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시연하고 떡매치기, 누룩디디기, 술이름 맞히기, 가래떡 썰기, 화전만들기 등 다양한 이벤트에 많

은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였다. 또한 투호놀이등 민속놀이와 전통혼례, 관례재현등 특별행사도 문화예술단체 주관으로 매일 펼쳐져 흥미를 더했다.

경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중국의 4개도시 우호단도 참가해 각각 자기나라의 전통주와 먹거리 를 선보여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

대각사상연구원 2001년도 학술세미나  
백용성스님과 한국불교의 사원경제 문제

지난 4월 12일 대각사(주지 흥교스님) 대웅전에서 대각사상연구원(원장 한보광 스님) 주최 대각사 후원으로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하여 2001년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이법산스님(동국대 교수) 사회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한보광스님의 “백용성스님의 후반기 생애” 기조강연, 이병희교수(교원대학교) “고려시대 사원의 재정운용”, 이봉춘교수(동국대학교) “조선불교의 경제현실과 그 대응활동” 김광식박사(대각사상연구원) “백용성스님과 일제하의 사찰재산·사찰경영” 이언오상무(삼성경제연구소) “불교와 경제의 만남: 현대 사원경제를 중심으로” 주

제발표를 하였으며, 한기문교수(상주대학교), 송수환박사(울산시청), 혜봉스님(친일불교연구가), 이도업스님(동국대학교)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하였다.

특히 삼성경제연구소 이언오 상무는 불교와 경제의 만남이란 주제 속에서 20세기 한국불교는 수난과 혼돈의 역사였으며 선불교종종, 현대화 등 긍정적 성과 속에서 교세의 성장이 정체되었고 물질적 정신적 유산을 보존하는데 급급하여 한국불교의 사회적 역할이 너무 빈약하다고 평가하며 현대 사회는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고 국제 금융이 발전하면서 ‘돈’의 힘들이 더욱 빨라졌을 것을 강조하였다.

## 종립학교소식

## 2001학년도 동해중학교 학부모 총회 개최

지난 2001년 3월 27일 동해중학교 학부모 총회를 개최하였다. 신축건물 특별실에서 열린 이번 학부모총회는 예년과 달리 학부모 350여명이 참석하여 학교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보였다.

강경중 학교장은 “봄에 바람이 불어 나무를 흔들면 뿌리에 새로운

생명력이 공급되는 것과 같이 동해중학교도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어 모든 선생님들이 심기일전하여 제2의 동해 건학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결시키고 있으므로 믿고 맡겨 이제 학교 교육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신뢰하고 협력할 때 학생들은 긍정

가 주어졌다.

이번 행사는 경주시의 각 동부녀회 중심으로 행사에 참가하였으며 경주 국광사 장정순(가지일) 보살, 이순희(안심복) 보살이 참가하여 자원봉사 및 행사도우미로 활동을 하였다.

장정순, 이순희 보살님은 각 동부녀회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광사 교도로써 깊은 신심과 모범적인 사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주 국광사 제공)

좋든 싫든 불교도 경제의 영향을 받게 되어 불교가 경제문제에 대처하지 못하고 경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불교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는 존립이 위태로워 진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불교는 근본적으로 탁월한 컨텐츠를 갖고 있으면서 커뮤니티의 결집력이 약하고 커머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컨텐츠를 사회요구에 맞추어 현대적으로 기공하지 못했고 커뮤니티 측면에서 승단 운영이나 신도조직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컨텐츠와 커뮤니티에 약점이 있을뿐 아니라 상업적 활동을 금기시하고 경제성에 대한 인식도 약하다며 수행을 열심히 하고(컨텐츠), 신심을 일으킨 신도들이 모여들고(커뮤니티), 회비 납부와 시주, 불교사업이 활발한 것이(커머스) 바람직한 사원 경제의 모습을 정의하였다.

시대요구와 불교정신에 맞는 사업을 창안하여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교의 사명과 사업을 결합하는 방안과 사업을 벌여 불교의 사명을 실현하는 방법, 신심에 호소하여 돈을 모으고 의미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방법을 개발할 것을 주장하였다. 새로운 시대의 불교의 사명(체)을 근본으로 하여 돈(용)을 활용하여 의미 있는 사업(상)을 벌여 불교의 사명과 돈은 모순이 아닌 상생의 관계로 바라볼 것을 강조하였다.

산 소나무처럼 잘 자랄 수 있을 것이다”고 하며 학부모님들의 성원을 당부 하셨다.

이어서 박영돈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선생님들의 학교발전을 위한 노력 결과 학교가 최근 눈부시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2·3학년 학부모님들은 확인할 수 있었다



며 학부모들도 작은 뜻과 성의를 모아 학교발전기금 모금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날 어머니 회장과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에서 박연연(3-7 조현민 학생회장)씨가 회장에 선출되었고 채현숙(2-7 허완수), 류은숙(1-2 김대곤)씨가 운영위원회 보선에 각각 선출되었다.

송광사가 5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보조국사 지눌스님 기념사업을 전개한다.

‘제791회 보조국사종재’를 시작

으로 5월 19일~31일까지 송광사 박물관에서 보조국사 지눌스님 ‘유물 유적특별전’ 5월 13일 학술세미나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 ‘선체

험 문화순례’를 실시한다.

19일부터 열리는 보조국사 유물 특별전에는 목조삼존불감이 특별전시된다. 이 삼존불은 현재 국립문화재 연구소에서 보수수리 중에 있으며 전시를 통해 삼존불의 역사적 미술적 개요와 보존 수리 과정을 사진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람들

## 순수함 이상 강한 힘은 없다

**함께하는 사람들은** 1998년 12월 전 현 올림픽-아세아게임 메달리스 선수들과 국가 대표 선수들이 중심이 되어 국민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결성되어 현재까지 사회 곳곳에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매달 1회씩 직접 방문하여 사랑을 나누고 있는 단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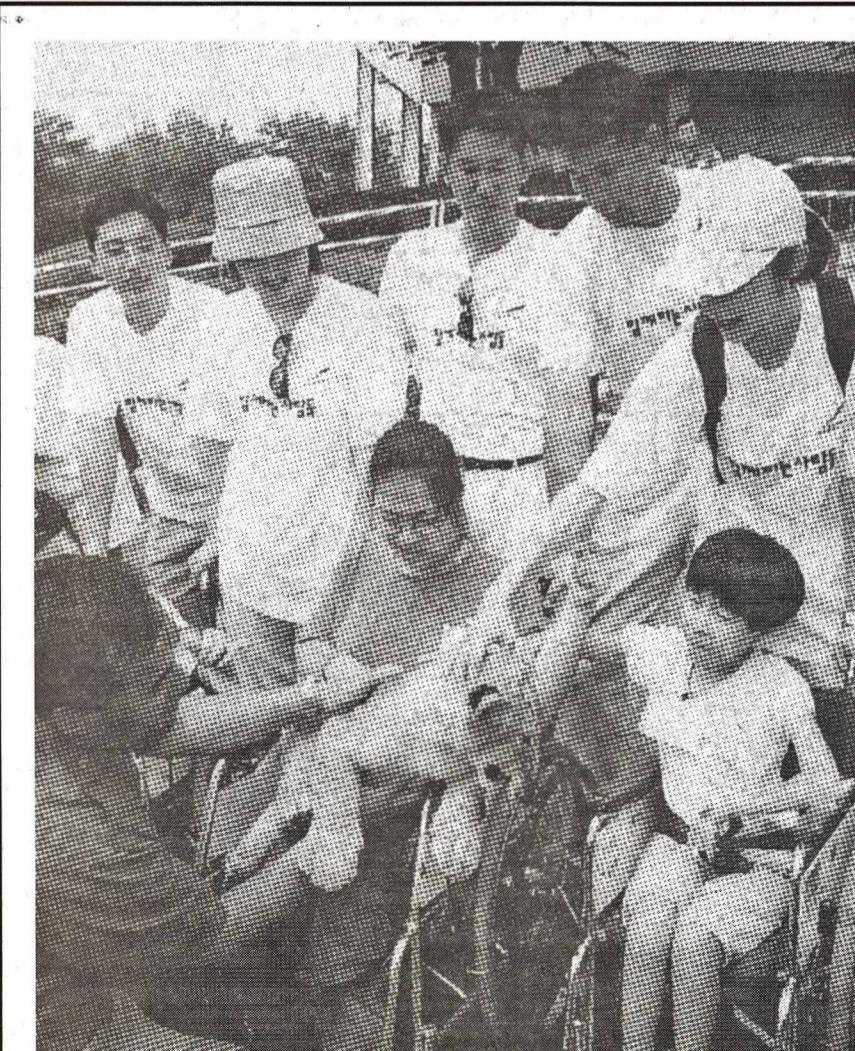
## ◎ 후원회 안내

- 후원 형태 : 오천원, 만원, 만원 이상
- 후원금 입금 : 국민은행 083-01-0303-861 예금주 : 함께하는 사람들(현정화)

◎ Homepage : <http://www.saram.or.kr>

우편번호 135-082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전화 : (02)555-223 팩스 : 3452-7486

함께하는 사람들



# “도시철도 봉축열차” 자비의 기적소리로 운행

지하철 5호선에서 82일간, 378회 운행



5호선 봉축열차 주요역 운행시간표

역명	평일		토·일·휴일		공휴일	
	상일동	방화	방화	상일동	방화	방화
방화	12:24	15:24	12:31	15:31	12:34	15:33
개천선	12:08	15:08	12:47	15:47	12:18	15:17
영동고개	11:59	14:59	12:56	15:56	12:09	15:08
신길	11:55	14:55	12:59	15:59	12:05	15:04
공덕	11:47	14:47	13:07	16:07	11:57	14:56
총정로	11:44	14:44	13:11	16:11	11:54	14:53
광화문	11:40	14:40	13:15	16:15	11:50	14:49
종로3가	11:38	14:38	13:17	16:17	11:48	14:47
대교로	11:34	14:34	13:21	16:21	11:44	14:43
청구	11:32	14:32	13:23	16:23	11:42	14:41
왕십리	11:27	14:27	13:28	16:28	11:37	14:36
군자	11:19	14:19	13:36	16:36	11:29	14:28
천호	11:12	14:12	13:43	16:43	11:22	14:21
강동	11:10	14:10	13:44	16:44	11:20	14:19
성일동	11:01	14:01	13:54	16:54	11:11	14:10

\*출발기준이며, ( )는 종착역 도착시간임. \*시각표는 차량검사 드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처음으로 운행하는 봉축열차(지하철 5호선)가 지난 9일 고덕차량기지에서 혜암통리원장, 진각종 성초통리원장, 관음종 흥파 총무원장, 남정 총화종 총무원장 등 불교인사와 단기 출가 동자승들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하여 개통식을 봉행했다.

봉축테마열차의 외부는 전통 단청문양으로 승객의 시선을 잡는 이미지로 연출하고 앞면과 뒷면은 만다라 문양을 설치하여 현대적 불교 문화를 연출하였다.

전동차 1대 8량 중 셋째칸부터 일곱째칸까지 모두 다섯칸을 장엄한 봉축테마열차는 ‘나를 찾아서 여행’을 주제로 도시생활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것이다.

이번 봉축테마열차 총기획을 맡은 이기선(동국대 미술사강사)씨는 “호돈과 자기성찰로부터” 훙희로운 연회장세계로의 연출을 통해 복잡하게 사는 현대인의 나를 찾는 계기를 부여한다는 컨셉으로 작품에 임했다”며 “셋째칸 작가 애주장(파리제8대학 조형예술 박사과정)의 작품 ‘소리와 색으로 공(空)’으로 화엄경의 화엄일승법계도를 표현하여 삶의 존재가 충만한 것임을 소리와 색으로 표현하였으며, 넷째칸 작가 김인경(조선대 미대 교수)의 작품 ‘나를 찾아서(禪房)’로 산사의 선방을 연출하여 현대인의 본주함 삶속에서 잠시나마 삶의 본주함을 잊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이 세상에 부처님 자비를 다양한 문화행사 시민 참여 유도

‘마음 청정, 나라 청정’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 날(5월 1일)을 맞아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되새기고 전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가장 큰 봉축행사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봉축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연등축제’(Lotus Lantern Festival). 28일 오후 7시 서울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전야제인 연등놀이로 시작되며, 29일 오후 4시 서울 동대문운동장에서는 약 10만 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기 부처님을 봉양하는 연등법회가 열린다. 법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오후 7시부터 코끼리·호랑이·용·탑 등 화려한 장엄등을 앞세우고 종로를 따라서 제등행진을 벌인다.

제등행렬은 오후 9시 우정국로에 집결하여 불꽃놀이·풀꽃·꽃비 등 대동놀이를 함께 기침으로써 연등축제를 마무리한다.

한편 29일 정오부터 밤 10시까지

우정국로에서는 연등만들기·외국인 등민들 대회·서각 탁본 시연·범파 시연·선무도 시연 등 전통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거리행사가 마련된다. 또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서울 봉은사에서는 문현에 전해오는 수십 가지의 전통 등을 재현하여 전시회(5월 13일·동국대 중강당)·‘백

작은 행사를 열린다.

부처님 오신 날인 1일에는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교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법전 스님과 총무원장 정대 스님, 신도 등 약 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 법요식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남·북 한 불교계가 함께 채택한 평화통일 공동 밀원문이 봉독될 예정이다. 각종 불교 신행 단체들이 주관하는 문화행사도 풍성하다. ‘연꽃 노래잔치’(22일·동국대 중강당)·‘부처님 그리기대회’(5월 5일·법주사) 등 어린이 행사, ‘전통예술 경연대회’(5월 13일·동국대 중강당)·‘백

일장 및 사생대회’(5월 6일·서울 목동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행사, ‘관소리 불타전’(5월 1일·안성 도피안사)·‘봉축 불교음악제’(1일·조계사 마당) 등 공연과 ‘법주 스님 선서회 전시회’(25~26일 1일·공평 아트센타 2층) 등 전시 행사도 마련된다. 또 ‘자비의 한물결 운동·결연 후원 및 복지기금 모금’(20~29일·전국 일원)·‘청각 장애인과 함께 하는 한마음 체육대회’(22일·석촌 초등학교)·‘자비 릴레이 사찰 연합봉사’(23~30일·탑골공원)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행시들도 준비되고 있다.

## 총사모 현혈 및 자연봉사활동

### 시작은 작으나 사회역할 높이는 계기

총지종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총사모)에서는 지난 7월과 15일 각각 양재동 혈액원에서 백혈병, 암환자 등에게 꼭 필요한 혈액속에 있는 혈소판을 나누는 자비현혈 행사를 가졌으며 15일에는 양재동 청계산에서 자연보호활동을 하였다.

법등 총지시주고는 “급한 환자에게 수혈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생명에 위협을 받는 이가 없도록 모두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자비현혈행사를 정기적으로 열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종단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였다.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서울 도시철도공사는 지난 4월 10일부터 상일동역에서 방회역을 오가는 5호선에 봉축테마열차 운행을 시작하여 오는 6월 30일까지 총 82일간 378회 운행하여 약 6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운행기간 동안 전통음악 연주회, 네팔 전통 춤, 공연 등 10회의 정기적인 이벤트를 선보인다.

총지종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총사모)에서는 지난 7월과 15일 각각 양재동 혈액원에서 백혈병, 암환자 등에게 꼭 필요한 혈액속에 있는 혈소판을 나누는 자비현혈 행사를 가졌다.

김욱 총사모 회장은 “앞으로 총사모는 각 사원의 각자님들이 모여 총지종단 교세발전과 사회속에서 총지종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는 일을 할 것이며 비록 시작은 작고 미미하지만 모임의 초석을 다진다는 각오로 모임을 이끌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자비현혈행사와 자연보호 행사에는 법등 총지시주교 및 이희성각님을 포함한 1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돌아오는 가정의달 5월에는 13일 자성일 불공을 마치고 가족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생명나눔실천회’ 창립 1인 1장기 기증 전진대회’ 행사

지난 4월 12일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김법장)는 12일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참여연대 박원순 무처장 등 장기 기증을 서약한 시민, 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회원,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7주년 행사 및 ‘전국민 1인 1장기 기증 전진대회’를 가졌다.

생명나눔실천회는 이날 대회에서 ‘우리는’ 삶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생명나눔운동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밝은 사회를 이루는 길임을 확신한다”며 ‘전국민 1인 1장기 기증운동’을 실천함으로써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삶을 나누어 주자’고 결의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 참석한 60여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가운데 일부는 추가로 장기기증 서약을 했다.

### 쓰소리 단소리

지난 57회 강공회에서 나온 여려 스승님들의 종보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몸돌비를 물렸다. 어렵고 힘들지만 열심히 해보라는 격려부터 편집의 중요성, 방향, 지방사원의 내용강화, 더 나아가 종보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쏟아졌다.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과 함께 능력 없는 이가 종단의 일대 관심사로 중대한 일을 맡고 있다는 부끄러운 마음이 앞선다.

현재 24회가 종보가 나왔으나 1회부터 월간으로 7번나왔다. 여러 불교단체와 강남구내에 총지종을 홍보하고, 정통밀교에 대한 바른 인식을 전달하려는 총지종보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종단의 밀거루인 교도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자부심도 심어주었다. 한국불교의 30여개 종단에서 제대로 된 종보가 나오는 종단은 불과 다섯손가락으로 손꼽을 수 있으니 그럴만도 하다.

이제 7번의 종보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의 형식적인 틀은 잡혔다고 생각하며 이제 부터는 질적인 도약을 위해 더욱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모든 교도가 공감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장으로 종보의 역할, 정확하고 구체화된 기사, 단순한 소식의 전달자가 아닌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기획기사 등 앞으로 질적인 내용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뼈를 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종단 전체의 관심과 애정, 밝적적인 종보의 발행을 위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을 말한다. 그러나 그러나 말이다.

종보발행을 지속해가면서 어떻게 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형식적인 모습과 당장 재정의 문제로 종보의 지속성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정통밀교의 홍보, 총지종단 소식, 교도의 자부심, 포교지로서의 총지종보는 일반적 경제논리로 발행이 후퇴되면 절대로 안될 것이다. 월간으로 나오는 신문을 격월간으로 후퇴가 아닌 격주 발행을 목표로 생각을 전환은 해보았는지...

냉철하게 생각해보자. 정말 읽을 거리가 없어서인가?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워서인가? 정말로 내용에 충실했기 위해서인가? 정말로 의지는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니면…

불기2545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처음도 좋고 끝도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 불자를 위한 불교 전화기 부루나폰

### 국내 최저 가격에 기능은 최고의 발신자 정보표시 전화기

잠깐 자리비운 사이 중요한 전화 놓친적 없으십니까?  
이제 부루나 폰(Buruna phone)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부루나폰  
BURUNA PHONE**

- 부루나(BURUNA): 부루나 존자는 부처님으로부터 설법 제일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의 본명은 푸르나 마이트라야니 푸트이며 푸르나는 “충만된”“만족된” 뜻으로  
자애로운 마음으로 충만된 여성의 자식 이될수 있다. (滿慈子) 滿足慈子)
- 2001년 5월 1일 ~ 2003년 3월 31까지 전화사용 요금의 5% 할인혜택
- 발신자 번호를 199개까지 기억 (부재중 전화포함)
- 콜백기능과 재다이얼기능
- 장거리 지역번호 자동입력 장치
- VIP 저장기능 및 단축다이얼 10개 저장
- 선·후불카드번호 저장 및 다이얼, 개인암호
- 외부로 건 전화번호 및 통화시간을 45개 까지 기억기능
- 핸드폰 및 시외전화 잠금장치

빅히트  
일본수출품



**부루나폰**  
BURUNA PHONE

상담문의 (주)리치웨이 / (주)누보텍  
TEL: (02)2271-1020(대)  
FAX: (02)2271-1025



# 불교 총지종은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비로자나불의 금강법계궁, 삼밀수행의 도량

한국 정통밀교 종단 불교총지종

천년의 잠을 깨고

우리 앞에 나타난 밀교(密教)!

법신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의

무언의 설법을 통하여 마음의 비밀을 깨달음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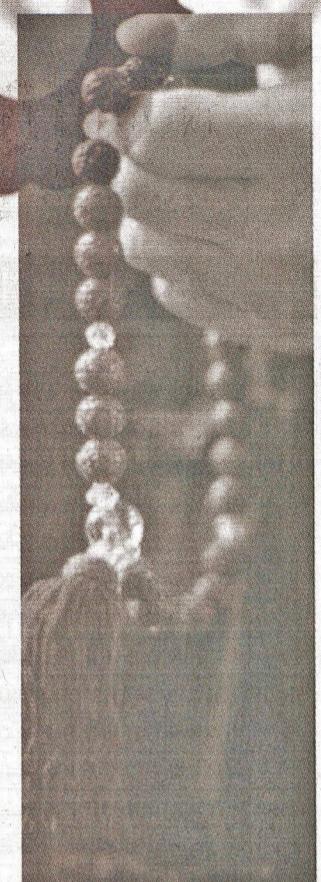
즉신 성불에 이르게 하는

정통밀교의 숭고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탁악세를 정화하고 무량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할 비밀의 문!

크 흔의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 불교총지종

Korea Buddhism Chong-ji-jong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76-2 ☎(02)552-1080~3

[www.chongji.or.kr](http://www.chongji.or.kr)

## 불교 총지종 종령 특정

- 통리원장 혜암 ■ 중앙종의회 의장 의강 ■ 중앙종의회 부의장 법공 ■ 사감원장 송하
- 총무부장원 송 ■ 재무부장지성 ■ 교정부장법등 ■ 사회부장대원
- 서울·경인교구장 환수원 ■ 충청·전라교구장 법수원 ■ 대구·경북교구장 원봉 ■ 부산·경남교구장 정정심